

신생 클래식 그룹 '두근두근' 첫 공연

베아투스, 6일 아트스페이스
스윗뮤직, 17일 금호아트홀
아르플래닛, 28일 ACC 예술극장
음악 향한 순수 열정 관객과 소통



오는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창단연주회를 펼치는 '아르플래닛'. <아르플래닛 제공>



오는 17일 금호아트홀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펼치는 '스윗뮤직앙상블' <스윗뮤직가든 제공>



베아투스 앙상블 소속 연주자들이 협연하는 모습. <베아투스 앙상블 제공>

지역 클래식계에서 신생 단체들의 소식은 언제나 반갑다. 첫 정기연주회와 창단연주회 등으로 관객을 만나는 세 클래식 팀을 소개한다.

“아르플래닛! 입단 조건 중 창단 연주회 비용은 대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저를 믿고 따라와 준 멤버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하고 싶었죠. 신생 팀이 공공기관 공연장을 대관하는 것이 마냥 쉽지 않은데, 'ACC 극장' 대관이 결정됐을 때는 저도 모르게 길거리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최근 창단한 아르플래닛(Arplanet) 대표 최혜지 씨의 말이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창단기념음악회'를 앞두고 있다.

아르플래닛은 청년예술인 육성 및 클래식 공연 기획을 주 목적으로 두고 설립한 단체다. 창단 계기를 묻는 질문에 최 대표는 “지난해 Remember Artist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시장상을 수상한 뒤 클래식 공연 기획에 관심을 두게 됐지만 개인으로는 한계를 절감했다”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예술가 중 마음이 맞는 인원과 뜻을 모아 팀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팀에는 전남대 피아노전공을 졸업한 김민호, 순천대 피아노학과 및 서울시립대 피아노전공 석사 과정을 졸업한 김세연, 전남대서 관현악을 전공한 김예본 바이올리니스트 등 지역 클래식 인재들이 소속돼 있다. 이 밖에도 플루티스트 문윤정, 피아니스트 백계준, 안다원, 유예름, 정재은 등 지역 대학이나 예술제 출신도 있다. 이들의 팀색은 ‘북분속전체’. 협연이나 앙상블 레퍼토리 외에도 주파트까지 마련해 개개인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창단 연주회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예본이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 Op.64 3rd mov’, 플루티스트 문윤정이 벤자민 고다르 곡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모음곡 Op.116’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 차이콥스키 ‘스케르초 교향곡 6번 B단조, Op.74’는 피아니스트 백계준이, 안다원, 정재은, 김민호는 각각 ‘소펍 발라드’와 ‘폴로네이즈 환상곡’ 등을 연주한다.

오는 6일 오후 3시 광주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창단연주회 ‘The Beginning’을 앞두고 있는 ‘베아투스 앙상블(Beatus Ensemble)’도 주목받는 팀이다. 라틴어로 ‘축복받은, 행복한’이라는 의미를 담은 ‘베아투스’를 모티브로 팀명을 만들었는데, 연주자와 관객 모두 음악으로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모두 전남대 예술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연주자들로 구성돼 있다. 조은유(첼로)를 비롯해 이혜인, 임예빈, 박준영, 송민정, 박다운, 안다원, 이서연(피아노)이 멤버들로 이들은 한국예술인복

지재단 ‘창작씨앗 지원사업’에 선정돼 앙상블을 꾸렸다.

전남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베아투스 이혜인 씨는 “평소 재학생이나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인들의 연주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피아노 포핸즈와 첼로 앙상블 레퍼토리가 주가 되는 이번 창단 연주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레퍼토리는 낭만~현대 시대로 넘어가는 곡들이 주를 이룬다. 생상스부터 드뷔시, 카푸스틴과 에릭사티 등 순으로 연주할 예정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클래식 음악의 변천사를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7일(오후 7시 30분) ‘첫’ 정기연주회로 공식적으로 관객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스윗뮤직앙상블’도 있다. 금호아트홀에서 펼치는 ‘제1회 정기연주회’는 지역 클래식 신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이들은 스윗뮤직가든의 젊은 연주자들이 모인 클래식 앙상블로 그동안 ‘ACC 라이브러리파크

복콘서트’,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식전공연’ 등에서 협연해 왔다. 정기연주회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지윤(오보에), 홍빛나(바이올린), 이지은(비올라), 이하민(첼로)은 전남대 음대 출신이며 정승훈(피아노)은 건국대 음악학과-미국 신시내티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첫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이지은 비올리니스트를 새로 영입했다.

스윗뮤직가든 송선미 대표는 “스윗뮤직앙상블”은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학구적 자세, 관객과 음악적 소통을 기치로 내걸고 만든 팀이다”며 “첫 완전체로 무대에 서는 자리라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지만, 조화로운 하모니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연은 칼 괴파르트의 ‘윈드 콰르텟 Op.93’, 모차르트 ‘플루트 콰르텟 1번 D장조, K285’를 비롯해 드뷔시, 멘델스존, 시벨리우스의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시 쓰는 경제학자의 유쾌·몽클 인문학

보성 출신 이경재 전주대 교수 ‘시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 펴내

대학교수이자 시인, 아동문학가, 시조시인 등 다양한 직함으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가 있다. 보성 출신 이경재 전주대 경영대학장이 주인공.

최근 이 교수가 ‘시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 (사우)를 펴냈다.

평소 그는 “경제학자이자 시인으로서 시를 경영, 경제, 보험, 치유, 행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연구하고 강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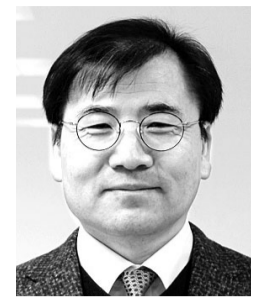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시를 읽고 쓰기 시작한 것은 “학생들에게 전공과목을 더 재미있게 강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시 쓰는 경제학자의 유쾌하고 몽클한 인문학 수업”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이번 책은 시와 인문이 결합된 책이다.

저자는 “시를 쓰면 사고가 유연해지고 이리저리 응용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며 “창의성이란 다르게 생각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 힘은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저자가 쓴 시와 그 시와 연관된 내용을 의미있게 풀이하기 위해 예로 든 다른 시인들의 시를 만날 수 있다. 책에는 51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각각 시에 대한 저자의 단상은 인문학자의 정감함과 시인의 감성 언어가 절묘하게 뒤섞여 있어 읽는 맛을 선사한다.

“행복하면 행복해요”라는 작품은 미소를 짓게 한다. “친구 단체 대화방에/ 새해 인사를 남겼다/ 새해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아뽀사/ 보



이경재 시인



내놓고 보니 오타가 있었다 얼른/ “행복 말고 행복이요 ㅎㅎ” 라며 다시 카톡을 보냈다...”

시는 새해 인사를 나누는 단체 대화방에서 나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다. ‘행복’을 ‘행복’으로 잘 쓴 글자가 시적 성찰로 이어진 사례다. 저자는 정유경 시인의 시 ‘지는 해를 매개로 지는 것’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친구랑 싸워 진 날 저녁/ 지는 해를 보았네/ 나는 분한데/ 붉게/ 지는 해는 아름다웠네/ 지는 해는 왜/ 아름답냐?”(까만 밤, 창비)

저자는 “이번 책은 시작 노트와 함께 시작법을 곁들인 시를 통해 창의력을 증진하거나 시를 써보고 싶은 분들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시를 감상하며 혹은 시작 노트를 엿보며 자연스럽게 시를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 국악’ 기본으로 돌아가다

전남도립국악단, 6일~6월 29일 무안 남도소리올림픽 공연

‘퓨전 국악’, ‘컨템포러리 판소리’, ‘국악밴드’ 등 현대적 요소를 접목한 국악 레퍼토리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옛것에 낯선 젊은 세대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우리 소리에 뿌리를 둔 ‘정통 국악’을 여전히 좋아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Back to the basic’을 슬로건으로 우리 전통 국악 작품들을 만나는 공연이 마련된다. 전남도립국악단이 2024 토요일국악회 시즌2 그린국악 일환으로 공연 ‘백 투 더 베이직’을 선보이는 것. 오는 6일부터 6월 29일까지(오후 4시) 전남 무안군 남도소리올림픽 공연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한다.

4월 6일에는 판소리 ‘홍보가’ 중 ‘제비노정기 대목’, ‘춘향가’ 중 ‘속대머리 대목’, ‘심청가’ 중 ‘짓둥 낭 대목’ 등 잘 알려진 판소리 눈대목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지는 ‘한영숙-박재희류 태평무’는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뜻을 춤으로 형상화한다. 또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매고 흰 고깔을 쓴 채로 추는 민속춤 ‘이매방류 승무’를 비롯해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삼도사물놀이’도 만날 수 있다.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 편성한 5월 4일 특집 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할인 및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 같은 달 18일에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 특집 공연도 볼 수 있다.



국악 관현악 합창 ‘오래된 미래’ 공연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공연을 주최한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채종욱 팀장은 “그동안 전남도립국악단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고 대중적, 실험적인 작품 등을 선보이며 스펙트럼을 넓혀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다양한 공연,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 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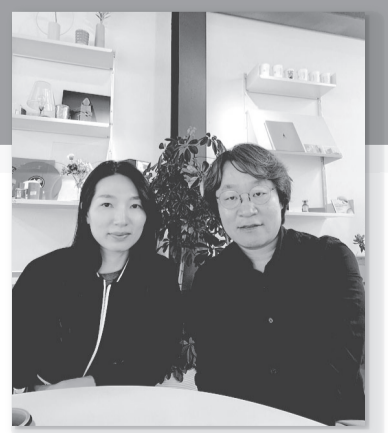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